

##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인식\*

이미형\*\* · 임지영\*\* · 이순득\*\*\* · 오승은\*\*\*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 발달 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기에 있어 필요한 인성 발달의 근간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인간은 지, 덕, 체의 삼위일체가 균형적이고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많은 사회적 지원과 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청소년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 만큼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 자체 뿐 아니라 교육 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경험 전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Theriot,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라는 이슈는 그 동안 언론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화두가 되어 버렸다. 특히 지난 2005년 학우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급부상하였다. 사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는 그 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적되어 왔다. Park(2005)은 2000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초등학교 20.5%, 중학생 18.8%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

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Huh, Lee, Choi와 Park(2006)도 초등학교도 더 이상 학교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미흡할 경우 피해자가 곧 가해자로 변모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2004년 1월에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보다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학교폭력의 정확한 원인과 특성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온전한 이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Park, 2005; Theriot, 2008).

학교폭력은 그 개념적 접근부터가 어떠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학교폭력을 규정하는 범위 또한 달라진다. Smith(1991)는 학교폭력을 체계화된 힘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 설명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 반면 학교폭력을 학생 개인 또는 또래집단 간의 반복적이고 부적정한 행동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Olweus, 1993).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체벌, 부적절한 행위, 성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며(Kim, 1999),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품갈취, 폭행, 공갈, 협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임지영 E-mail: lim20712@inha.ac.kr)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

투고일: 2009년 3월 27일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09년 7월 15일

박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Lee, C. J., 1999).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범위의 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확대되고, 포괄적이며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건교사로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 문제 및 성장 발달과 관련된 상담자, 교육자,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성장기에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질병에 대한 예방과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활동은 보건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정신 심리적 건강문제이다. 특히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는 물리적 상처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보건교사가 주체가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Theriot(2008)는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폭력의 유형을 물리적 폭행, 성적 학대 및 성폭행, 정신적 학대와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특히 정신적 학대의 경우 놀림, 무시하기, 이름부르기 등과 같은 언어적 학대가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Fisher와 Kettl(2003)은 오늘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일반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그 질을 하락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방안으로서 아동전문간호사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점차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 해석되어감에 따라 교내에서 뿐 아니라 교외에서 그리고 학생간 뿐 아니라 교사 학생간의 문제에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조정, 관리, 상담하는 역할을 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간호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이제 도입기에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련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 온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Choi,

2005; Kwon, 2005; Yu, 200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례관리를 시행하거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보건교사의 참여가 필수요건이므로 현직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인 보건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사, 간호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와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학교보건의 책임자인 보건교사가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교보건의 책임자인 보건교사가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확인한다.
- 2) 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확인한다.
- 3) 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을 확인한다.
- 4) 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원인, 대처방안간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용어 정의

### 1)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품갈취, 폭행, 공갈, 협박, 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한 공격행동이라기 보다는 비사회화된 공격적 품행장애를 의미한다(Lee, C. J., 1999).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욕/폭언, 구타, 금품갈취, 협박, 따돌림/왕따, 성추행/성폭행, 불

량서클/집단 패싸움 및 도난의 8개 항목으로 측정된 공격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 중 21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자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일 광역시 관할 지역내 전체 213개의 초등학교, 125개의 중학교, 111개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집단을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이 중 2007년 청소년 약물예방 교사연수에 참여한 167개교, 초등학교 교사 110명, 중학교 교사 75명, 고등학교 교사 45명 등 총 23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참여에 동의함을 밝힌 자로 하였다.

###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Lee, J.(1999)의 학교폭력 측정 도구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이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학교폭력의 유형 8문항,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장소 7문항, 학교폭력의 원인 6문항,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방침 12문항,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방안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형으로 가부로 표시하되, 학교폭력의 원인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3 이었다.

### 3.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먼저 일 광역시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 관할 지역 내 전체 초, 중,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낸 후 청소년 약물예방 교사연수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연수가 시작되기 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교사들이 스스로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작성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AS 10.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유형별 학교폭력의 유형, 원인, 대처방안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폭력의 유형, 원인, 대처방안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hi^2$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위, 근무경력 및 근무학교의 6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14세(SD=8.11)로 파악되었고, 성별에서는 남성 39명(18.1%), 여성 177명(81.9%)으로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3년제 전문대학졸 13명(6.0%), 대학졸 159명(73.6%), 석사 이상 44명(20.4%)으로 나타났다. 직위면에서는 보건교사가 10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교사 73명(33.8%), 주임교사 32명(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0~20년이 82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인 경우도 56명으로 25.9%를 차지하였다. 근무학교별 분포는 초등학교 108명(50.0%), 중학교 66명(30.6%), 고등학교 42명(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학교폭력의 유형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나타난 것은 1순위 욕/폭언 118명(55.14%), 2순위 따돌림/왕따 83명(38.79%), 3순위 구타 35명(16.36%), 4순위 금품

갈취 33명(15.42%), 5순위 도난 20명(9.3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유형별로 지난 1년간 교내 발생 빈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는 욕/폭언이 180명(83.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따돌림/왕따 146명(69.51%), 도난 141명(67.47%), 구타 135명(63.98%), 금품갈취 110명(5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인 욕/폭언과 따돌림/왕따가 실제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따돌림/왕따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학교폭력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욕/폭언, 도난의 학교폭력 유형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금품갈취, 협박, 성추행/성폭행, 불량서클/집단패싸움의 학교폭력 유형

형인 욕/폭언과 따돌림/왕따가 실제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따돌림/왕따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학교폭력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욕/폭언, 도난의 학교폭력 유형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금품갈취, 협박, 성추행/성폭행, 불량서클/집단패싸움의 학교폭력 유형

Table 1.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Frequency (n=216)

Types		Elementary n(%)	Middle n(%)	High n(%)	Seriousness n(%)	$\chi^2$	p
Cursing/ strong language	Never	5( 2.35)	0( 0.00)	1( 0.47)	118(55.14)	22.179	.004
	Rare	22(10.33)	1( 0.47)	4( 1.88)			
	Sometimes	45(21.13)	29(13.62)	15( 7.04)			
	Often	23(10.80)	23(10.80)	10( 4.69)			
	Always	12( 5.63)	13( 6.10)	10( 4.69)			
Physical violence	Never	10( 4.78)	1( 0.48)	3( 1.44)	35(16.36)		.003*
	Rare	37(17.70)	13( 6.22)	11(5.26)			
	Sometimes	40(19.14)	40(19.14)	16(7.66)			
	Often	16( 7.66)	6( 2.87)	7( 3.35)			
	Always	0( 0.00)	6( 2.87)	3( 1.44)			
Taking personal items	Never	15( 7.25)	4( 1.93)	6( 2.90)	33(15.42)		<.001*
	Rare	50(24.15)	9( 4.35)	14( 6.76)			
	Sometimes	36(17.39)	44(21.26)	15( 7.25)			
	Often	0( 0.00)	8( 3.86)	2( 0.97)			
	Always	0( 0.00)	1( 0.48)	3( 1.45)			
Threats	Never	16( 7.73)	3( 1.45)	6( 2.90)	16( 7.48)		<.001*
	Rare	48(23.19)	15(7.25)	14( 6.76)			
	Sometimes	32(15.46)	38(18.36)	14( 6.76)			
	Often	3( 1.45)	10( 4.83)	4( 1.93)			
	Always	2( 0.97)	0( 0.00)	2( 0.97)			
Bullying/outcast	Never	6( 2.88)	1( 0.48)	4( 1.92)	83(38.79)		.377*
	Rare	25(12.02)	15( 7.21)	11( 5.29)			
	Sometimes	59(28.37)	38(18.27)	20( 9.62)			
	Often	11( 5.29)	11( 5.29)	3( 1.44)			
	Always	1( 0.48)	1( 0.48)	2( 0.96)			
Sexual harrasment/ sexual violence	Never	53(25.85)	25(12.20)	11( 5.37)	8( 3.74)		.024*
	Rare	45(21.95)	33(16.10)	24(11.71)			
	Sometimes	2( 0.98)	6( 2.93)	5( 2.44)			
	Often	0( 0.00)	0( 0.00)	0( 0.00)			
	Always	0( 0.00)	1( 0.49)	0( 0.00)			
Gangsters/ group violence	Never	48(23.19)	17( 8.21)	10( 4.83)	13( 6.07)		.003*
	Rare	46(22.22)	33(15.94)	23(11.11)			
	Sometimes	6( 2.90)	16( 7.73)	6( 2.90)			
	Often	1( 0.48)	0( 0.00)	1( 0.48)			
	Always	0( 0.00)	0( 0.00)	0( 0.00)			
Stealing	Never	14( 6.76)	5( 2.42)	2( 0.97)	20( 9.35)		<.001*
	Rare	35(16.91)	7( 3.38)	4( 1.93)			
	Sometimes	43(20.77)	36(17.39)	25(12.08)			
	Often	8( 3.86)	13( 6.28)	6( 2.90)			
	Always	1( 0.48)	5( 2.42)	3( 1.45)			

\* Fisher's Exact test

은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구타의 학교폭력 유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1).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의 유형을 조사 결과에서는 교내 후미진 곳/화장실이 75명(35.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학교 근처/골목 73명(34.43%), 교실/복도 37명(17.37%), 학원/PC방/독서실 22명(10.33%)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유형 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내 후미진 곳/화장실, 학교근처/골목의 순으로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근소하기는 하나 학교근처/골목이 가장 빈번하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교내 후미진 곳/화장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발

생 장소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 3.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1순위 가정 환경적 요인 93명(43.66%), 2순위 심리적 요인 43명(20.19%), 3순위 사회 환경적 요인 27명(12.21%), 4순위 인간관계요인 7명(3.29%), 5순위 학교 환경적 요인 4명(1.88%)의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위의 5가지 요인 모두 다 해당된다는 의견도 40명(18.78%)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1순위 가정환경적 요인, 2순위 심리적 요인으로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3순위 요인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인 경우는 사회환경적

Table 2. Places Where School Violence Often Occurs\* (n=216)

Place	Elementary n(%)	Middle n(%)	High n(%)	Total n(%)	Fisher's exact test
Classroom/hallway	18(16.67)	10(15.38)	9(22.50)	37(17.37)	.053
Secluded areas on school grounds/ lavatory	41(37.96)	22(33.85)	12(30.00)	75(35.21)	
Near school/alley	30(28.04)	30(46.15)	13(32.50)	73(34.43)	
Hill/empty lot	10( 9.26)	4( 6.15)	2( 5.00)	16( 7.51)	
Academy/PC room/study room	9( 8.33)	9(13.85)	4(10.00)	22(10.33)	
Entertainment facility/park	2( 1.85)	9(13.85)	1( 2.50)	12( 5.63)	
Home/near home	1( 0.93)	1( 1.54)	3( 7.50)	5( 2.35)	

\* Multiple choice

Table 3. The Main Causes of School Violence (n=216)

Cause	Elementary n(%)	Middle n(%)	High n(%)	Total n(%)	Fisher's exact test
Psychological (Impulsive action, lack of guilt, inferiority complex, etc.)	23(21.50)	10(15.15)	10(25.00)	43(20.19)	.308
Home environment (Broken homes, inappropriate care methods, family violence, etc.)	48(44.86)	31(46.97)	14(35.00)	93(43.66)	
School environment (Entrance-based education, over-concentrated classes, lack of emotional education, etc.)	2( 1.87)	0( 0.00)	2( 5.00)	4( 1.88)	
Social environment (Elevation of social class conflict, violent crime culture, violence in the media, etc.)	14(13.08)	10(15.15)	2( 5.00)	27(12.21)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school peers, teachers, violent gangs, etc.)	3( 2.80)	1( 1.52)	3( 7.50)	7( 3.29)	
All of the above	17(15.89)	14(21.21)	9(22.50)	40(18.78)	

요인으로 파악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인간관계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원인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 4.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 방안

현재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학생상담 189명(90.00%), 반성문 작성 125명(59.52%), 학

부모 통지 123명(58.57%), 가족상담 113명(53.81%) 등 이었으며, 정학 또는 퇴학과 같은 강경한 방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의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의 2% 미만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규정 또는 지침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규정은 학생상담인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방침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가족상담 또는 학부모 통지를 상대적으로

Table 4. School Rules or Regulations Regarding School Violence\* (n=216)

Rules or regulations	Elementary n(%)	Middle n(%)	High n(%)	Total n(%)	$\chi^2$	p
Warning	9( 8.49)	26(40.63)	18(45.00)	53(25.24)	103.805	<.001
Suspension	1( 0.94)	4( 6.25)	12(30.00)	17( 8.10)		
Expulsion	1( 0.94)	0( 0.00)	7(17.50)	8( 3.81)		
Student counseling	93(87.74)	61(95.31)	35(87.50)	189(90.00)		
Family counseling	54(50.94)	34(53.13)	25(53.13)	113(53.81)		
Corporal punishment	8( 7.55)	17(26.56)	15(37.50)	40(19.05)		
Written apology	44(41.51)	51(79.69)	30(75.00)	125(59.52)		
Detention	7( 6.60)	26(40.63)	12(30.00)	45(21.43)		
Parent notification	60(56.60)	34(53.13)	29(72.50)	123(58.57)		
Penalty points	4( 3.77)	15(23.44)	17(42.50)	36(17.14)		
Special program participation	9( 8.49)	14(21.88)	15(37.50)	38(18.10)		
None	2( 1.89)	0( 0.00)	1( 2.50)	3( 1.43)		

\* Multiple choice

Table 5. Effective Methods to Prevent School Violence\* (n=216)

Effective prevention methods	Elementary n(%)	Middle n(%)	High n(%)	Total n(%)	Fisher's exact test
The provision of school violence education to students	64(60.38)	33(51.56)	25(62.50)	122(58.10)	.957
Counseling and support for student victims	19(17.92)	14(21.88)	7(17.50)	40(19.05)	
Education/training of school faculty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10( 9.43)	10(15.63)	7(17.50)	27(12.86)	
Education/support programs for violent students	29(27.36)	23(35.94)	13(32.50)	65(30.95)	
Programs for parent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22(20.75)	17(26.56)	6(15.00)	45(21.43)	
Appointment of a counseling teacher in school	12(11.32)	9(14.06)	6(15.00)	27(12.86)	
Promotion of intramural club activities	2( 1.89)	3( 4.69)	3( 7.50)	8( 3.81)	
Strengthening of ethical/moral education	8( 7.55)	7(10.94)	4(10.00)	19( 9.50)	
Stronger regulations regarding entertainment facilities near schools	3( 2.83)	3( 4.69)	1( 2.50)	7( 3.33)	
Stronger regulations regarding violent publications/visual materials	5( 4.76)	7(10.94)	3( 7.50)	15( 7.18)	

\* Multiple choice

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반성문 작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현직 교사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효과적 대처 방안으로 조사된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 중 122명, 58.10%가 이에 예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가해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65명(30.95%), 자녀와 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 45명(21.43%),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지 제공 40명(19.0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제공, 가해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피해 학생 상담 및 지지 제공,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훈련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른 효과적 학교폭력 대처 방안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 IV. 논 의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함께 본 분석에서 나타난 논의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초점이 되었던 학교폭력의 유형에서 본 연구에서는 욕/폭언, 구타, 금품갈취, 협박, 따돌림/왕따, 성추행/성폭행, 불량서클/집단 패싸움 및 도난의 8개 영역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Park(2005)의 경우는 약취, 집단괴롭힘, 폭행, 추행의 4개 영역으로, Kwon(2005)의 경우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괴롭힘, 성적 폭력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교폭력의 범주를 어떻게 구분하여 볼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 유형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욕/폭언의 언어적 폭력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파악되었고 실제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998년에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에서 폭력유형별 피해

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구타와 폭행이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비해 물리적인 실체를 갖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불안, 공포, 수치심, 무기력감 등을 불러오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상응하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Park, 1997). 특히 폭력적 분위기가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 이름 등과 같이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공포심과 불안 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Kwon, 1997). Theriot(2008)의 연구에서도 놀림, 야유, 이름 부르기, 무시하기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이 정신 심리적 학대의 주요 원인이 됨을 지적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과거 폭행, 구타 등과 같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에서 점차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결과이다. 욕/폭언과 함께 본 연구에서 가장 심각한 다빈도 폭력 유형으로 나타난 따돌림/왕따의 문제도 피해학생에게 물리적 폭력 못지않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는 폭력의 형태라는 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행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폭력의 유형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욕/폭언, 구타, 또는 도난의 학교폭력이 많은 반면 중학교에서는 금품갈취, 구타, 협박, 성추행/성폭행, 불량서클/집단 패싸움 형태의 학교폭력이 다빈도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정의한 8개 유형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경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철저한 예방과 학교폭력에 노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공과 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함께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1순위 교내 후미진 곳/화장실, 2순위 학교근처/골목으로 나타나 학교 폭력이 교내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담장 밖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학교 안에서의 대처로만은 불충분

하며, 보다 근원적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연계를 통한 접근방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가정환경적 요인이 지적되었다. 가정환경적 요인에는 결손가정, 부적절한 양육방식 그리고 가정폭력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목격 경험은 가정환경관련 요인 중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Choi, 2005), Lim(2005)도 가정해체와 빈곤,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결합하여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칠 때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폭증됨을 강조한 바 있다. 학교폭력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해결 대안을 찾는 과정이 시작되며 또한 수립된 대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곳으로 인간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관이다(Kwon, 2005). 따라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상호 간의 영향과 관련성을 검토하고 아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가 모두 함께 체계적인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진행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연구 결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Zhang과 Johnson(2005)은 고등학생의 폭력 행동을 분석한 결과에서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의 참여뿐 아니라 학생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행정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Park(2005)도 학교폭력의 해결은 사회 전체가 함께 하여야 할 과제를 강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스쿨폴리스맘(school police mom)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그 이유를 어머니야말로 학생, 교사, 지역사회 주민 누구와도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며, 또한 자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스쿨폴리스맘 제도는 아직

도입단계이므로 실제 본 제도가 학교폭력 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스쿨폴리스맘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청소년 문화와 상담에 필요한 전문성과 폭력 발생 등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사례관리시 필요한 법률적 지식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운영체계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각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처방안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생 상담, 반성문 작성, 학부모 통지, 가족상담 등이 다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98% 이상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고 답하여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교의 대처 규정도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교폭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제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현재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처 방법과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대처 방안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처 방안은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적 대처 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안 수립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간에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Yu(200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신체폭력 요인, 심리폭력 요인, 언어폭력 요인, 집단폭력 요인에 대하여 각각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향후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처벌 중심의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예방중심의 해결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Greene(2008)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몇 개의 하위 유형을 제시하였다. 주요 유형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 본질과 같은 교육에



초점을 둔 인지 행동 유형, 학생들이 폭력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 이해에 초점을 둔 사회적 학습 유형,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에 따른 포상에 초점을 둔 행동수정 유형과 전통적인 치료적 상담 기법 적용에 초점을 둔 유형 등이 제시되었다. Chung(2007)은 학교폭력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초등학교 도덕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들의 삶과 관계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 Korea School Counseling Support Center(2007)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폭력 상담사례 자료를 분석하여 피, 가해자 공통 프로그램, 피해 유형별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가해 유형별 프로그램 상담매뉴얼을 개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 교과과정 개발시 주요 교과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앞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방안은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주로 캠페인이나 외부 강사에 의한 일회적인 강의 등으로 이루어져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 바람직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적인 교육 운영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Chung, 2007).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성장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한 삶을 이끌어 가야하는 보건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행 주체로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상설화와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고 역할 확대를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광역시 관할 지역내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한 것이다. 대상자는 총 167개교, 초, 중, 고등학교 교사 216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욕/폭언, 따돌림/왕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장소로는 학교 내 후미진 곳/화장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근처/골목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범위가 학교 내 뿐 아니라 학교 밖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가정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안으로는 학생상담, 반성문 작성 순으로 다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폭력의 유형이 물리적 폭력에서 점차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주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측면 뿐 아니라 가정환경적 측면과 사회환경적 측면에 모두 중재적 접근이 가능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시 유용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 학교 폭력의 가장 심각한, 다빈도 발생 유형은 폭언과 따돌림이며, 이러한 학교폭력의 발생에 무엇보다도 가정 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 학생, 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 참여가 전제된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운영의 정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끝으로 학교폭력은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므로 현장에 있는 보건의교사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전문적 지식과 상담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신간호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 및 보건간호사회 등이 연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유형별 학교폭력 유형과 대처방안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통계적 유의성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실증적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균등한 대상자를 확보한 조건 하에서의 추후 연구가 시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Choi, W. S. (2005).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2), 95-111.
- Chung, M. (2007). A study on the analysis of curriculum and textbook of moral education for preventive education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in th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Research Studies, 38*(1), 143-164.
- Fisher, K., & Kettl, P. (2003). Teacher's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Journal of Pediatric Healthcare, 17*(2), 79-83.
- Greene, M. B. (2008). Reducing school violence: School-based curricular programs and school climate. *Prevention Researcher, 15*(1), 12-16.
- Huh, S., Lee, H., Choi, T., & Park, S. (2006). The analysis of the reasons of elementary school violence and damage by experience of elementary school violence and damag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1), 259-280.
- Kim, S. W. (1999). The roles of teachers and school of school violence. *The social and academic alternatives of school violen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 Korea School Counseling Support Center (2007). *The case analysis of school violence and development of school violence counseling manuals*. Seoul: Korea School Counseling Support Center.
- Kwon, I. J. (1997). The backgrounds of school violence and guidanc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7*(3), 81-101.
- Kwon, O. (2005). A study on the cause and countermeasures on the school violence. *Law Review, 18*, 257-279.
- Lee, C. J. (1999). An psychological approach of school violence. *The social and academic alternatives of school violen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 Lee, J. (1999). *The research on the student's consciousnes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chool violence: Focused o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Yae-san coun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 Chun Hyang University, Asan.
- Lim, K. S. (2005). An approach of school welfare perspective for school viol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12*, 13-25.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Blackwell.
- Park, J. (2005). Student violences at school and the roles of community in violence preven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2), 51-76.
- Park, S. S. (1997). A direction of the mode of the adolescent counseling in 21st centur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5(1), 7-38.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Psychologist*, 4(6), 243-248.

Theriot, M. T. (2008).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assessment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at school. *Children and School*, 30(4), 223-233.

Yu, P. (2005). Analysis on effectiveness of the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middle schoo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2), 51-76.

Zhang, L., & Johnson, W. D. (2005). Violence-related behaviors on school property among Mississippi public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75(2), 67-71.

## Perception of Teachers on School Violence

---

Lee, Mihyoung · Lim, Ji You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Lee, Soon Deuk · Oh, Seung Eu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fficient strategy planning to prevent school violence by analyzing the types, causes and copying methods of school violence.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a finite population of teachers (n=230) in a certain area. The method of data collection wa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 total of 216 surveys were conducted using a modified school violence measurement tool (Lee, 1999).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10.0. **Results:** The most serious school violence type perceived by the teachers was cursing/strong language. The main cause of school violence was perceived to be the home environment factors such as broken homes, inadequate care methods, and family violence. The most effective copying method of school violence was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for the students. **Conclusions:** Establishment of prevention education for students need for future school violence prevention.

**Key words :** School Health Services, Violence